

### 6월의 기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1.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코로나로 지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아멘 -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꿈이 이뤄지도록 간구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원을 둔다는 것은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보고 소원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원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꿈을 마음속에 꾸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신문 자료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40년에는 시속 50km로 여행하면 인간은 질식할 것이다. 지금부터 166년 전 신문에는 사람이 시속 50km로 여행을 하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이다. 또 1901년에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1926년 신문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달에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속 50km 이상은 못 달린다고 했는데 시속 600km 넘는 열차가 나오고 총알 기차(bullet train)가 나와 있습니다. 시속 3500km로 소리보다 3배나 빠른 비행기도 나와 있습니다. 달에는 벌써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는 전부 안되는 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같이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 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꿈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기적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원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1년 해외성회

### 요르단



기원전 10세기 중엽, 이스라엘 다윗왕 때 이스라엘 군대는 요르단 동편지역에 있는 암몬왕국의 수도 랍바를 공략하기 위해 원정 중이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왕은 전쟁 중의 사령관에게 “전선의 제일 앞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전투가 치열해질 때 그를 남겨놓고 군대를 급히 후퇴시켜라”는 내용의 비밀 서신을 보냈고 그의 비밀 지시로 인해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한편 우리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사사시대, 암몬의 왕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당황한 이스라엘은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며 암몬과의 전투에 나섰다. 입다는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개선할 때 저의 집에서 제일 먼저 문밖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해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는 오점을 남겼다.

두 사건의 무대였던 랍바는 바로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다. 알라의 제국이라 불리는 땅 요르단에서 개최된 2001년 성회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적인 집회이다. ‘예수 혁명’이라 불리는 요르단성회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암만대학교 실내 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요르단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하여 50여개 현지 복음주의 개

신교단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성회였다. 당초 우려와 달리 현지인 1만 5천여명이 참석하여 요르단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독교 집회로 기록됐다.

◎...아라비아 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연 강수량 300mm 이하의 건조한 도시로 이곳에서 비를 구경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가 암만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자 성회가 개최되기 전날 암만에는 몇 개월만에 비가 내렸고 조용기 목사의 도착을 알고 있는 현지 사람들은 ‘비를 몰고 온 반가운 사람’이라고 입담을 전하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는 티번을 쓰고 차도르를 걸친 아랍사람들 앞에서 첫째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주제로 설교하였고, 둘째날은 사도행전 8장 4-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라고 규정짓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찾으라고 선포했다. 본 성회를 주최한 요르단 하나님의 성회는 회교권이라는 특



성 때문에 당초 성회 참석 인원을 500 여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첫날 강당 최대 수용인원인 6천명을 넘어서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이틀째 진행되던 성회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신유기도 선포로, 한 청각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고 이외 500여명이 치유받으며 500명이 결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이븐 후세인(당시)의 초청을 받아 왕궁을 방문, 요르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한편 요르단 부총리와 관광성 장관 등 정부 각료들과의 회담 또한 진행되었다. 조용기목사의 요르단 방문은 회교도가 절대 다수인 곳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의 새 장을 여는 동시에 성장하는 요르단 복음주의 운동을 자극했다는 현지 언론(요르단 타임즈)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성회로 기록되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는 지극히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를 꾸꾸시고 그렇게 되도록 창조적인 명령을 말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지극히 좋은 지구를 지으시고 제 칠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짓기 위해서는 성령과 꿈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꽂 차 있을 때, 창조의 근본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1.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게 하시려면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말하는 꿈과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예수 십자가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종복음을 꾸꾸고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가지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4차원적 존재로서 속사람을 통하여 3차원의 세계를 마음에 부동시켜놓고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식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고 뜨거우면 먹는 것조차 중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25절)

다.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면 그 소원 때문에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거룩하게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을 따라 내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큰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불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 2.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마음속에 꿈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그릇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한 후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응답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의 것으로 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의 것을 현재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수 1: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먼 훗날에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리 훗날의 일이라도 그것이 오늘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서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개 발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바람이 반드시 불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토네이도나 쓰나미가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 7:24-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확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쓸 동안에 아직 믿음이 적을 땀니다. 믿음이 오면 믿음이 나를 붙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포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 3. 입술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적 명령의 말씀을 명할 때, 3차원의 세계 속에 창조와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는 말씀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망하는 것을 흥하게 하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 주시고 가난을 부요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로써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의 화관에 좋은 것을 그려놓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4)

### 십자가 복음 들고 국내 복음화 위해 전진



▲2008년 잠실운동장에서 성역 50주년 대성회



▲1972년 추기 대부흥성회에서 헤롤드 허만 목사님과 함께



▲1989년 잠실운동장에서 성역 30주년 대성회



▲2001년 DCEM 창립 1주년 기념식

세계적 복음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1958년 5명의 성도들로 교회를 개척해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웠다. 서대문순복음중 앙교회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함께 국내외 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며 성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참석자들을 불러모았다. 1962년 부산, 전주 등지에서 개최된 부흥회에 초청받아 복음을 전했고 1975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대전도대회는 연일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1975년 9월 200만 부산시민을 위한 대 전도대회와 1976년 6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도대회도 대규모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8월 조용기 목사는 서울에서 개최된 <80 세계복음화대성회>에 운집한 200만여 명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 1987년에는 여의

도광장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1988년에는 연인원 300만여 명이 참석한 <88 세계복음화대성회> 설교자로 나서 “민족이 발전하려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6월 여의도광장(현 여의도공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개최됐는데 여의도 뿐만 아니라 부산, 충북 등 30여 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같은 해 10월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10.3 세계기도대성회>는 역사적인 성회로 기록될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성회였다. 성회 장소를 가득 메운 100만여 명은 전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고, 내국인 외에도 125개국의 3,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초교파적 기도대성회 때마다 조용기 목사는 주강사로 나서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먼저 회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한국교회에 성령 바람을 일으켰다. 조용기 목사는 다른 곳에 비해 복음화율이

낮은 영남권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성회를 인도했다. 1981년 최자실 목사와 함께 50만 울산 시민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회를 인도했고, 부산에서는 198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회를 인도했다. 2002년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로 ‘부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던 부산 성시화 성회는 교파를 초월해 많은 성도들이 참석, 부산 복음화의 불씨 역할을 했다. 대구에서는 1985년 기독교 대구 방송국 주최로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전도집회 강사로 초청받아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1990년 9월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성회가 열렸고, 1992년에는 순복음대구교회 입당과 함께 열린 지역복음화대성회 강사로 나서 말씀을 선포했다. <뉴스레터 6월호에서 계속됩니다.>